

# 인류사 전개 과정에 대한 고고학자 차일드의 역사관 재조명\*

고 일 흥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1. 머리말

고든 차일드는 고고학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폭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인류사의 전개 과정을 서술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인 전환들의 연속으로 인식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전환에는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식량 채집 경제에서 식량 생산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했던 신석기 혁명과 도시의 등장에 따른 사회-경제 조직의 재편성을 의미했던 도시 혁명, 이 두 개념은 고고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고, 그 결

---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주제어: 고든 차일드, 역사 전개, 신석기 혁명, 도시 혁명, 진보, 변증법적 유물론  
V. G. Childe, historical process, Neolithic Revolution, Urban Revolution, progress, dialectical materialism

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두 혁명에 대한 오해를 낳기도 했다. 특히 ‘혁명’이라는 단어는 어느덧 ‘발전’의 뉘앙스를 지니게 되었고, 인류는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을 거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암암리에 만연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차일드가 제시했던 ‘도시화’의 열 가지 특징들이 ‘문명’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둔갑해 버렸고(예를 들어, Kradin 2006), 나아가 ‘비문명’과 비교되는 문명의 우월함을 입증하는 사항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리하여 차일드의 혁명들은 어느덧 목적론적 관점에서의 인류사 서술, 즉 인류가 끊임없는 발전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보는 역사 서술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차일드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을 주도한 것은 역사 변동인데, 이러한 역사 변동은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지 특정한 방향성을 - 가령 ‘발전’으로의 방향성을 - 가지고 진행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고고학자들은 근대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차일드의 업적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 특히 그의 역사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방치해 두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트리거(Trigger 1968: 533)가 지적했듯이, 차일드는 극단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연구를 병행했는데, 하나는 고고학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편년과 문화권을 설정한 그의 ‘전문화 지향적(particularizing)’ 연구였고, 또 하나는 인류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그 전개 과정의 동인들을 파악한 그의 ‘일반화 지향적(generalizing)’ 연구였다. 주지하다시피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에 관한 그의 구상은 후자에 속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처음부터 차일드의 ‘전문화 지향적’ 연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따라서 차일드의 사후에는 그의 ‘일반화 지향

적’ 연구가, ‘오아시스 이론’이나 ‘전업적 생산 전문화’에 대한 논의 정도를 제외하고는, 고고학자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한편, 차일드가 대중들에게까지 전달하고자 한 그의 ‘일반화 지향적’ 연구에는 그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때 역사 변동과 그것을 가져온 모순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차일드의 독특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차일드의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동시대의 고고학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차일드의 생전에도 그의 마르크스주의를 일종의 지적 유희나 일탈 정도로 치부하려고 했다고 한다(Trigger 1980: 16).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아탑을 벗어나서 진행된, 게다가 ‘붉은 빛깔’마저 띠는 차일드의 인류사 전반에 대한 논의는 많은 고고학자들에게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되었을 리가 없다. 차일드가 몸담았던 영국 고고학계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었는데, 일례로 1975년에 있었던 ‘제 1회 고든 차일드 기념 강연회’에서 당시 영국 고고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 중 하나였던 그램 클라크(Clark 1976: 16)는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을 호고주의자들이나 관심을 가질 법한 개념들로 치부해 버렸다고 한다(Greene 1999: 97).

그런데 필자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간과해 왔던 차일드의 이러한 ‘일반화 지향적’ 연구야 말로 그의 업적에서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본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물론, 당시의 그 어떠한 학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과거 인류의 실제 삶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차일드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으로부터 빌려온 일부 이론과 개념을 해석적인 도구로 사용하며 사적 유물론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관점에서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에 대해 서술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차일드의 이러한 업적은 신석기 및 도시 혁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고고학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류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차일드의 독특한 시각을 점검함으로써 이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차일드의 생각이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삶과 고고학적 연구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그 다음, 인류 역사에 관한 차일드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는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기여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두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여기에서는 본고의 문제의식에 따라 차일드가 인류사에 관한 그의 전체적 구상 속에서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sup>1)</sup> 마지막으로, 인류사의 전개에 관한 차일드의 독특한 생각을,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에 대한 그의 구상과 연관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겠다. 첫째,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삼시대법의 분기 설정을 사용하면서도 각각의 시대를 ‘기술-재질적’ 시기로 보지 않고 ‘사회-경제적’ 단계로 이해하는 것은 차일드의 유산임을 환기시키겠다. 둘째, 차일드가 인류의 기술적 ‘진보’는 인정했으나, 그것을 바탕으로 인류가 소위 ‘발전’했다고 본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겠다. 셋째, 경제 및 사회의 모순된 상황들이 극복되는 변증법적 과정 속에서 역사 변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본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을 소개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차일드의 지적 유산에 대한 재발견과 재평가를 도모하겠으며, 그의 원래 입장이 인류 역사에 관한 오늘날의 연구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겠다.

---

1) 이 두 혁명에 관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 특히 각각의 개념이 차일드의 논의 이후 발견된 고고학 자료와 어떻게 부합하는지와 후대 고고학자들이 그 개념들을 어떻게 발전 혹은 비판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의 상세한 논의를 요구하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 2. 차일드의 삶과 연구<sup>2)</sup>

차일드는 1957년에 65살의 나이로 타계하기까지 총 22권의 책과 225편의 논문을 남겼다. 그의 연구는 유럽의 선사 사회부터 근동의 도시 문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시공간적 범위를 포괄했으며, 그의 저작들은 각 지역의 다양한 고고학적 물질문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은 물론, 사회 변동의 양상과 동인, 그리고 고고학의 이론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차일드의 이러한 방대한 업적은 고고학에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체취는 여전히 학문 전반에 남아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고학은 차일드가 인생에서 선택했던 첫 번째 길이 아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1914년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한 그는 유럽의 선사 고고학뿐만 아니라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에 심취했고, 결국 사회주의에 입문했다. 그는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와 1918년부터는 당시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의 노동당 주지사이었던 존 스토리(John Storey)의 개인 비서로 근무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자 했으나 1921년에 스토리가 갑자기 사망한 이후 호주의 정치판을 떠났다. 이후 키건 폴(Kegan Paul) 출판사를 위해 고대 문명을 다룬 몇 개의 저서들을 번역했는데, 이를 계기로 고대 로마,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등 다양한 과거 사회들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1925년부터는 런던에서 왕립 인류학 연구소(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의 사서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차일드는 그곳에 있으면서 발굴 현장에 직접 나가기보다는 유럽의 박물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발굴 보고서를 통해 유럽 각지에서 나온 물질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 그 결과 유럽의 선

2) 본 절은 차일드의 삶과 연구를 다룬 다음 저서들을 참고했다. Green(1981), Orser and Patterson(2004), Sherratt(1989), Trigger(1980; 1987), Tringham(1983).

사 시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문화들의 공시적·통시적 전개 과정을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이러한 작업은 20세기 초 고고학의 대표적인 경향이었던 ‘문화사적 접근(cultural-historical approach)’의 근간이 되었다.

차일드는 특히 유럽의 선사 문명에 대해 관심을 주로 가졌다. 참고로 당시의 고고학자들은 유럽의 지역 단위 연구에만 열중할 뿐, 하나의 통합된 ‘유럽 문명’을 연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차일드의 경우, ‘유럽 문명’ 그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 1925년에는 『유럽 문명의 여명』(*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그리고 1926년에는 『아리안족』(*The Aryans*)을 출간했다. 차일드가 이러한 통합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비유럽적 정체성 때문이라고 평가된 바 있다(Green 1981). 즉,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인 그는 유럽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타자’였기 때문에 유럽의 개별 문화들이 이루는 유럽 문명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거시적 안목은 이후 인류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룬 그의 연구의 근간이 되었다.

차일드는 1927년에 에딘버러 대학의 초대 고고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당시 영국의 몇 안 되는 전문 고고학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였던 그는 도서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근동의 선사 고고학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었다. 한편, 그는 개별 문화들의 시·공간적 전개 과정을 추적해 나가는 문화사적 접근 방법에 대해 지적인 회의를 느끼면서 인류사 전반에 나타난 거시적인 경제 동향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Trigger 1987: 2). 그러면서 차일드는 이때부터 유럽 및 근동 고고학을 배경으로 문명의 변천을 가져온 경제적 동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고대의 동방』(*The Most Ancient East*, 1928)에서는 농경의 개시가 인류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강조했고, 『청동기 시대』(*The Bronze Age*, 1930)에서는 금속 제

련술을 동반한 수공업 전문화가 어떻게 자급자족적 신석기 사회의 와해를 가져왔는지를 다루었고, 『고대의 동방에 관한 새로운 식견』(*New Light on the Most Ancient East*, 1934)에서는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전환과 자급자족적 농촌 취락에서 도시 사회로의 전환을 ‘혁명적’인 사건으로 평가했다.

차일드의 고고학적 연구는 그가 1935년에 소련을 방문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소련 고고학을 처음으로 접한 차일드는 그것에 나타난 단선 진화론적 역사관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적 역사 접근 방법의 가능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류 문명의 변천을 설명하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마련했다. 즉, 차일드는 이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생적인 기술 발전 보다는 바로 이러한 모순이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을 결정짓는 역동적인 힘이라고 보았다(Trigger 1987: 3). 이러한 마르크스적 사회 변동의 모델을 인류사의 서술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인류사의 전개』(*Man Makes Himself*, 1936)와 『인류사의 사건들』(*What Happened in History*, 1942)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소련 고고학에 실망한 차일드는 마르크스적 사고의 철학적 토대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과거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데 마르크스적 이론을 하나의 분석적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Trigger 1987: 5). 차일드는 특히 애딘버러 대학을 떠나 런던 대학의 고고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역임하는 10년 동안 위와 같은 주제로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소위 ‘사회 고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글들은 물론, 고고학이라는 학문에서 사용되는 방법론과 고고학의 학문적 정체성 자체에 대한 글들을 남기게 되었다. 「고고학과 인류학」(*Archaeology and Anthropology*, 1946a), 『역사』(*History*, 1947a), 『사

회 진화』(*Social Evolution*, 1951) 등이 이에 해당된다.<sup>3)</sup>

은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간 차일드는 1956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블루 마운틴스(Blue Mountains)에서 의문의 실족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그가 소련군이 자행한 1956년 헝가리 혁명에 대한 폭력 진압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회의를 느껴 자살을 했다고 전한다(Faulkner 2007). 또한 그가 역사 변동의 설명에 필요한 분석적 방법론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자살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Green 1981; Trigger 1987). 하지만 인류 역사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그의 모델과 그것에 반영되어 있던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역사 인식은 여전히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3.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에 관한 차일드의 구상

차일드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들을 ‘혁명’이라고 부른 것은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전환과 자급자족적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의 전환을 산업 혁명에 준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즉, ‘혁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 혁명’, ‘녹색 혁명’ 등에서 흔히 그러는 것처럼 일반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산업 혁명’과의 직접적 비교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Greene 1999). 따라서 산업 혁명과 견주어 보면 차일드가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을 어떻게 구상했는지는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다. 그는 우선 이 두 혁명이 인류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삶의 모습을 가져온, 산업 혁명에 준하는 ‘질적’ 전환이었던 것

3) 차일드가 저술한 이러한 성격의 글들은 패터슨와 오르서(Patterson and Orser 2004)에 의해 편집되어 출간된 바 있으며, 이는 최근 『고든 차일드의 사회고고학』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출판되었다(차일드 2009).

으로 보았다(Smith 2009). 차일드가 말했듯이 이 전환들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친 진정한 혁명들이었다”(Childe 1935: 7). 그는 또한 산업 혁명이 그러했듯이,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을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인 대전환으로 인식했다. 이로써 그는 이러한 혁명들에 기반해서 형성된 인류의 지난 역사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이는 당시 역사학계에서 만연하던 정치사에 대한 회의와 경제사 및 사회사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Trigger 1987: 2). 마지막으로 산업 혁명과의 비교는 차일드가 이 두 혁명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준다. 신석기 및 도시 혁명은 산업 혁명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것은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진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차일드가 산업 혁명의 폐단을 당연히 인지했듯이, 그는 신석기 혁명의 인구 증가가 가져온 폐단을 지적했고, 도시 혁명으로 인해 많은 집단들이 소외되고 억압되는 과정을 부각시켰다. 차일드의 혁명들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야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신석기 혁명’의 경우, 차일드 이전의 학자들도 근동에서 일어났던 사냥 및 식물 채집에서 가축 사육 및 작물 재배로의 전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혁명적’ 대전환으로 인식했던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Gathercole 2005: 36). 차일드의 이러한 생각은 앞서 언급했듯이 1928년에 『고대의 동방』에서부터 나타났지만, ‘신석기’와 ‘혁명’이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즉 소문자 ‘neolithic revolution’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선사 시대 연구 목적과 방법론의 변화」(‘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1935)에서부터이다(McNairn 1990: 92-3). 하나의 명실상부한 개념으로서의 ‘신석기 혁명’을 나타내는 용어인 대문자 ‘Neolithic

Revolution'은 차일드가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망하기 시작한 1942년의 『인류사의 전개』에서 제시되었다(Trigger 1980: 95). 그렇다면 차일드는 신석기 혁명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했는가?

“첫 번째 혁명적 진전은 특정 집단 혹은 몇몇의 집단이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혹은 둘 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다. 경작자나 사육자나 [경작과 목축을 겸업하는] 혼합농부(mixed farmer)는 재배 작물과 가축을 통해 식량의 공급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수요에 맞추어 식량의 공급을 늘릴 수 있었다... 인간 생활의 이러한 혁명은 신석기 혁명(neolithic revolution)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 신석기는 ‘식량-생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석기 시대의 식량-채집과 대비된다(Childe 1935: 7).”

위의 문구로 알 수 있듯이 신석기 혁명은 무엇보다도 식량 생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비단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식량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즉 잉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곧 인류 사회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온 ‘불평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차일드는 처음부터 식량 생산을 사회-경제적 전환의 메커니즘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신석기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식량 생산으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사회-경제적 ‘전환’이 워낙 ‘혁명적’이었기 때문이지, 식량 생산에 반영된 지식과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혁명적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은 아니었다.

신석기 혁명을 주도한 식량 생산, 즉 농경의 발생에 관한 차일드의 해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차일드는 소위 ‘오아시스 가설’라고 불리게 된 모델을 제시하여 농경의 시작을 설명했다. 『고대의 동방』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이 모델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후의 변화에 따른 환경의 건조화로 인간과 동물 모두가 오아시스로 모여들

게 되었는데, 이처럼 한정된 지역에서 인간과 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자 식량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해결책은 동물과 식물에 대한 순화(馴化, domestication)였다는 것이다. 즉, 차일드는 농경을 ‘모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인간이 선택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한편, 1950년대에 들어와 이와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농경의 기원을 설명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브레이드우드(Braidwood) 등은 ‘자연 서식지 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은 무엇보다도 농경이 야생 작물의 이상적 자연 서식지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았다. 즉, 사람들이 야생 식물이 잘 자라는 곳에서 그 식물들과 친숙하게 지내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서 순화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는 것이다(Braidwood and Howe 1960). 다시 말해, 자연 서식지 가설은 동식물의 순화를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지식을 축적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일드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이 가설에 입각해서 식량 생산으로의 전환이 이해되면서 신석기 혁명에 관한 오해가 일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사람들은 - 특히 비고고학 식자층은 - 농경으로의 전환이 야생종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축적되면서 일어난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신석기 혁명 역시 인류가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운명이었던 필연적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신석기 혁명에 대한 차일드의 구상은 그나마 제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 혁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 개념이 널리 소개된 것은 고고학 전문 잡지가 아닌 『타운 플래닝 리뷰』(*Town Planning Review*)에 실렸던 「도시 혁명」(*The Urban Revolu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이다.<sup>4)</sup> 이 논문은 차일드의 학문적 활동에서 황혼기에 해당되는 1950년에

4) 참고로 스미스에 의하면, 고고학자가 쓴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차일드의 이 논문이다(Smith 2009: 3).

쓰여진 것으로, 여기에서 그는 “가장 이른 도시의 경우라도 그것을 앞선 시대, 혹은 같은 시대의 마을과 구분해 주는 10개의 상당히 추상적인 기준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기준들을 나열했다(Childe 1950, Patterson and Orser ed. 2004: 112-5에 재수록).<sup>5)</sup> 도시화의 여부를 알려주는 그의 이러한 ‘목록’은 이후 널리 회자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차일드가 제시한 이 열 가지 기준 사이에는 유기적 관계가 별로 없으며, 그것 자체만으로는 도시 혁명에 관한 그의 구상을 이해하기가 힘들다(McNarin 1990: 100-1). 따라서 도시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일드의 그보다 앞선 시기의 연구를 살펴보아야 한다.

차일드가 대문자 ‘Urban Revolution’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42년 『인류사의 전개』에서부터이다(Trigger 1980: 95). 그러나 도시 혁명의 핵심적 사항은 1930년대에 출판한 『청동기 시대』에서 이미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차일드는 청동 제련술이라는 새로운 기술 진보가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여파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그는 청동 제련이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업적 전문가(full-time specialist)의 등장을 가져왔다고 보았으며, 또한 구리와 주석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원료이므로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장거리 교역의 본격화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신석기 시대 농부들이 자급자족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Childe 1930). 따라서 차일드는 청동 생산이, 도시 혁명의 직접적 동인은 아닐지라도, 도시화로의 진행을 야기한 발명들 중 가장 핵심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했다(McNairn 1990: 101). 청동 생산의 본격화는 전업적 장인 집단과 장거리 교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의 확보를 필요

---

5) 그 10개의 기준은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마을보다 큰 규모, (2) 기존의 마을과는 다른 구성과 기능, (3) 잉여의 집중, (4) 기념비적 건축물, (5) 사회 잉여의 불평등한 분배, (6) 문자의 사용, (7) 학문적 과학의 등장, (8) 자연주의적 예술, (9) 일상적인 교역, (10) 혈연이 아닌 거주에 기반을 둔 국가 조직.

로 했다. 그렇다면 사회 자본은 어떻게 확충될 수 있었는가? 한 가지 방법은 기존 생산 단위들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었고, 다른 방법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약적 생산을 유도하고, 그러한 생산물에 대한 집중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차일드는 후자의 선택만이 도시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ibid.*: 102).<sup>6)</sup> 즉, 청동 생산에 필요한 잉여 자본은 애초에 그것의 집약화와 집중화를 유도했던 정치적, 종교적 기관들에 집중되었고, 이 기관들은 그 자본을 가지고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구리 등 원자재의 수입, 그리고 식량 생산으로부터 벗어난 장인 집단, 군인 등에 대한 식량 제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경제 및 행정 시스템을 재조직했다. 이러한 전환은 다시 정치, 사회, 예술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유도했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촉진시킨 것은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이었다. 결국 차일드는 도시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던 변화들의 총체를 일컬어 ‘도시 혁명’이라고 했던 것이다. 즉, 흔히 문명 생활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도시화’는 인류가 적극적으로 추구한 하나의 목표라기보다는 청동 제련술 등 당시의 기술 발명으로부터 파생된 사회-경제적 상황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몇몇 집단들이 선택한 삶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 4. 인류사의 전개에 관한 차일드의 시각

##### 4.1. 인류 역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기 설정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에 관한 차일드의 위와 같은 구상에는 기존과

---

6) 이러한 차일드의 생각은 그의 연구에 반영된 변증법적 역사관을 보여주기 위해 본고의 182쪽에 소개된 도시 혁명에 관한 인용구의 앞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는 다른 시각에서 인류사의 분기들을 설정하고자 한 그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즉, 그는 19세기부터 사용되었던 ‘석기 시대’, ‘동기 시대’, ‘철기 시대’와 같은 분기들을 사용하면서 그것에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다. 차일드의 이러한 접근은 이후 역사 서술에 널리 도입되었고, 우리가 인류의 지난 발자취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기왕에 인류사의 서술에 사용되었던 분기 설정은 어떠했으며,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게 된 차일드의 논리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톰센(Thomsen)의 삼시대법은 과거의 기술적 양상을 반영해주는 도구의 재질에 따라 선사 시대의 분기를 설정했다. 따라서 이 모델은 무엇보다도 인류의 역사를 ‘기술 단계’들의 연쇄로 보았던 것이다(McNairn 1980: 74). 물론 톰센의 삼시대법이 처음 고안되었을 당시, 그것은 인류 역사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다만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선사 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 제안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톰센의 뒤를 이은 고고학자들은 삼시대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우선 스칸디나비아 이외 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접하게 된 보르사예(Worsaae)는 유럽 전역은 아닐지라도 유럽의 많은 지역에 톰센의 삼시대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트리거 2010: 137). 또한 영국인 고고학자 러복(Lubbock)은 ‘석기 시대’를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세분화하면서 “빙하가 이동하던 시기. 인간이 맘모스, 동굴곰, 털 난 코뿔소, 그리고 그 외의 절멸동물과 함께 유럽에서 살았던 시기. 나는 바로 이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하며(Lubbock 1865, Daniel 1967: 120에서 재인용) 삼시대법의 기술 단계에 지질학적 의미와 생태학적 의미를 새롭게 추가했다(McNairn 1980: 75).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이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 19세기 후반부터는 삼시대법의 각 분기를 상대적 시간을 나타내는 ‘단

계'(stage)가 아닌 절대적 시간을 나타내는 일종의 '세'(世, epoch)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ibid.*: 77).

20세기 초에 들어와 고고학의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고고학자들은 삼시대법의 각 단계가 지구상에 걸쳐 같은 시기에 나타나지는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차일드의 경우, 지질학의 시대들(eras)처럼 인식되고 있던 삼시대법의 '시대'(Age)들이 동일한 배열 순서를 보이는 것(homotaxial)일 뿐, 지구 전체에 걸쳐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Childe 1947b, Patterson and Orser ed. 2004: 47에 재수록). 이것은 곧 그가 삼시대법을 더 이상 절대적 편년의 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차일드는 삼시대법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도구로서의 유용성마저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의 분기 설정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진정한 '혁명'들을 부각시킨다고 보았다(McNarin 1980: 78).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혁명들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혁명들이었다. 즉, 차일드는 삼시대법의 분기들이 인류사에서 확인되는 사회-경제적 단계들과 일치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차일드는 어떠한 논리를 동원해서 삼시대법의 '기술적' 구분을 '사회-경제적' 구분으로 새롭게 전환시켰던 것인가?

차일드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정의할 때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정의할 때 각각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했다. 우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나눌 때는 '생계 방식'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를 규정하게 된 새로운 특징인 '식량 생산 경제'가 기존의 특징 중 하나였던 '마제 석기'와 반드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수렵-채집 경제를 영위하면서 석기와 토기를 사용했던 북동부 유럽의 콤 토기 문화(comb ware culture)의 사례와, 농경 생활을 영위하면서 타제 석기를 주로 사용했던 이집트의 바다리 문화(Badarian culture)의 사례를 제시했다(Childe 1935: 9). 이것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차일드는 인류사의 앞선 시기를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눌 때 삼시대법의 용어들만 빌려왔을 뿐, 도구의 재질을 가지고 각 분기를 나누었던 그 내적 논리는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차일드가 그 이후의 시기를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로 나눌 때는 삼시대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청동제 도구와 철제 도구의 새로운 사용을 각 분기의 특징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각각의 시대에 새롭게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다음의 두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7)</sup>

“고고학자가 선사시대를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나눈 것은 순전히 자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 특히 도끼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던 재질에 기준을 둔 것인데, 이러한 도구는 가장 중요한 생산의 도구들(tools of production) 중 하나이다. 실재적 역사관점(realist history)에 의하면 그것들은 사회 체계와 경제 조직을 조성하고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Childe 1936: 9).”

“이 기준들은 피상적 증상들이 아니라, 분류되고 있는 사회들의 경제 및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알다시피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은, 최소한 도구가 덜 갖추어진 사회들의 경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의 결정적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생산 수단에 따라 분류된 사회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해 보면 생산 ‘수단’(means of production)이 생산 ‘양식’(mode of production)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잘 확인된다(Childe 1946b: 18-9).”

물론 차일드는 도구의 재질을 통해 과거의 생산 양식을 유추하는 작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었다.<sup>8)</sup> 그러나 차일드가 활동했을 시기에는

7) 이 두 문구는 맥네린의 글에서 재인용한 것이다(McNarin 1980: 79).

과거의 경제 양상에 관한 직접적 자료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었으므로, 그가 선택했던 추론의 과정은 당시로서는 유효했다고 판단된다.

결국 차일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삼시대법의 틀 안에서 사용되고 있던 인류사의 기존 분기들에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러한 작업은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에 관한 그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경제 조직 및 사회 구조를 가진 ‘시대’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4.2. 인류 역사의 ‘발전’에 대한 믿음?

차일드의 글들을 보면 한국어로는 ‘진보’로 번역되고, 흔히 ‘발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progress’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는 『진보와 고고학』(*Progress and Archaeology*, 1944)이라는 제목의 저작도 있다. 또한 그는 모건(Morgan)으로부터 ‘야만’, ‘미개’, ‘문명’의 개념들을 빌려와 이들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후’에 각각 대응시키며 사용했다. 따라서 차일드의 이러한 용어 및 개념의 사용은 그가 인류사의 전개 과정을 사회 진화론자들과 마찬가지로 필연적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8) “그러나 필자가 제시한 바로 이 사실들은 단일 요소 하나만을 분류 기준으로 삼는 분류체계의 한계를 노출시키기도 했다. 청동에 대한 지식과 대장장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톱이나 바퀴달린 운송 수단, 금속제 낫 등이 사회적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또한 철의 사용 그 자체가 인간에게 새로운 도구를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와 이집트 철기시대 대장장이들의 일하는 모습에서 보이는 차이는 이를 입증해 준다. 다시 말해, 스탈린이 말했듯이 ‘생산 관계는 도구와 장인들의 전통적 기술로 대변되는 사회의 생산력만큼이나 생산의 본질적 요소이다.’”(Childe 1947b, Patterson and Orser ed. 2004: 61에 재수록).

물론 차일드가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진보의 흐름들을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진보’를 이해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진보’라는 용어에는 사회 진화론의 목적론적 관점이 가미되어 있다. 즉, 진보의 여부는 흔히 절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기보다는 인류 역사의 정점에서 있는 ‘현재의 우리’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평가되며, 고고학이나 역사학의 논의 속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은 스펜서(Spencer), 메인(Maine), 타일러(Tylor)와 같은 19세기 사회 진화론자들의 시각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일드는 ‘진보’를 바라보는 이러한 사회 진화론자들의 시각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Childe 1951). 따라서 그가 인류의 ‘진보’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최소한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좀 더 나은 상태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렇다면 차일드는 ‘진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인류사의 전개』 첫 번째 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진보했는가’를 묻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왜냐하면 개인적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모두가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여기서 진보는 실제 일어난 바, 즉 역사의 내용 그 자체가 된다.”(Childe 1936: 11)<sup>9)</sup> 즉, 그는 ‘진보’라는 개념에서 ‘진전’이나 ‘발전’의 함의를 빼고, 그 대신 인류 역사가 전개되었던 과정 그 자체를 진보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차일드가 이렇듯 ‘인류의 진보’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인류사 전개 과정’ 그 자체로만 인식했던 것이라면, 그 진보의 양상은 어떠했는가? ‘진보’에 관한 차일드의 생각이 수록되었던 『인류사의 전개』를 보면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은 인간이 과학 지식을

9)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마지막 문장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But now progress becomes what actually happened - the content of history.

축적하면서 자연을 지배해 나간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사회 및 정치 체계의 복잡화가 진행된 과정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그가 인류의 진보 양상을 무엇보다도 과학적 관점에서의 발전, 즉 ‘기술 발전’이 일어났던 과정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McNairn: 28; Trigger 1980: 118).

그런데 인류의 진보 과정을 기술의 발전 과정으로 볼 경우, 그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사회 및 경제의 발전을 유추할 수 있지 않는가? 차일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사에서의 기술 발전이 가졌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일드는 우선 기술의 발전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늘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유럽의 철기 시대 집단들이 고안했던 농업 방식은 수 천 년 동안 유지되었지만, 더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된 미국의 대규모 기계화 농업 방식이 1930년대의 재앙적 ‘더스트볼(Dust Bowl)’ 모래폭풍으로 이어졌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그는 기술의 발전이 한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에 의해 동등하게 공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인류의 주거 건축물이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을지라도 현대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의 농장 오두막이 난방이나 위생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발굴했던 스카라 브레이(Skara Brae) 유적의 신석기 시대 주거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Trigger 1980: 115). 마지막으로 그는 동일한 기술 발전이 서로 다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 예가 청동기 제작 기술이 유럽에서는 사회 혁신의 동인으로 작용했지만 근동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인데, 참고로 그 이유와 관련해서 차일드는 ‘생산 관계’가 도구와 장인들의 전통적 기술로 대변되는 사회의 ‘생산력’ 못지않게 ‘생산’의 중요 요소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설파했다(Childe 1947b, Patterson and Orser ed. 2004: 61에 재수록).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차일드는 인류의 ‘진보’를 기술의 발전으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에서 필연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의 방향을 찾지 않았던 것

이다.

물론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한 것은 사실이며, 차일드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을, 즉 그가 말한 ‘인류의 진보’ 과정을 ‘사회-경제적 발전’의 과정으로 보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발전’의 현상들마저 부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인류의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인류의 발전을 포착했으며, 또한 인간이 기술적 장치들을 개발해서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것도 일종의 발전으로 인식했다(Trigger 1980: 117). 그러나 차일드는 한편으로 이러한 발전들과 더불어 존재했던,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발전들이 낳았던 인간 사회의 부정적 측면들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류사의 사건들』 중 신석기 혁명의 핵심적 기술 발전인 ‘식량 생산’이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다음의 대목이다.

“신석기 혁명이 진행된 이후로 호모 사피엔스 종이 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그 혁명이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유리했는지가 입증된다... 인구의 수적 증가는 공간적 팽창을 동반했다. 늘어난 가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나서야 했다. 미개 단계의 농경민들은 결국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같은 종류의 땅을 두고 경쟁했으며, 그 땅이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경쟁 자체가 전쟁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다른 이들로부터 빼앗은 농경지나 목초지로는 그것이 원래 부양했던 인구수보다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신석기 경제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쟁과 살육은 인구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키기 때문이다(Childe 1954: 73-5).”

정리하자면, 차일드는 과학 지식이 축적되고 기술이 발전되는 방향으

로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었다고는 보았다. 그리고 이를 ‘인류 진보’의 핵심적 내용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고는 본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차일드는 인류의 진보를 이야기하면서도 사회 진화론의 목적론적 역사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sup>10)</sup>

### 4.3. 변증법적 역사 변동

인류 역사의 전개를 필연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차일드는 역사 변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사회 진화론의 목적론적 역사관에서는 역사 변동의 메커니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당연히 ‘진보’, 즉 발전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인류사에서 일어난 변동의 사건들은 그러한 발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진화론이 처음 구상되었을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이론은 계몽주의 전통의 영향을 받아 ‘진보’를 인류의 본질적 특징으로 인식하던 서양의 19세기 학자들이 제국주의적 팽창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소위 ‘원시사회들’(primitive societies)이 어떻게 현대의 문명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Kuper 1988).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회 진화론자들이 이러한 진보의 과정을 태초부터 그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들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Sanderson 1990).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모건의 ‘생각의 싹’(germs of thought) 개념이다. 모건은 인류 역사의 각 사회 단계를 특징짓는 문화 요소들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야만 단계

10) 트링햄도 ‘발전’에 관한 차일드의 입장과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Tringham 1983: 96).

부터 나타났던 ‘생각의 싹’이 성장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Morgan 1907: 59). 다시 말해, 인류사의 전개 과정을 바로 이러한 ‘생각의 싹’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여겼던 것이다. 다만 사회에 따라 ‘생각의 싹’이 성장한 정도가 달랐기에, 그 정도에 따라 사회들을 서열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회 진화론은 이처럼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을 인류 본연의 가능성들이 무르익다가 결국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볼 때, 싹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이 외부의 방해만 없다면 당연한 결과이듯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즉 ‘進步’하는 사회 변동은 원래 내재되어 있던 방향성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Nisbet 1969).

그러나 차일드는 인류의 역사가 특별한 방향을 따라, 혹은 미리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전개된다고 보지 않았다. 그 대신 역사 변동의 과정 속에서 인류사의 전개 양상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역사 변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고민했으며, ‘신석기 혁명’과 ‘도시 혁명’에 관한 그의 구상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차일드는 역사 변동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는 무엇보다도 변증법적 유물론(dialectical materialism)의 입장에서 역사 변동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변증법적 유물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상 확인되는 여러 시기들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상태로 보기보다는 계급 간 혹은 생산력 사이의 모순이 만들어낸 상황으로 이해했고, 그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가 전개된다고 보았는데, 그가

11) 차일드가 사적 유물론을 받아들였지만 변증법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예를 들어, McNairn 1980: 134, 158),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자인 트링햄에 의하면, 그는 변증법적 역사관의 입장에서 인류사의 전개 과정을 분명히 서술했지만 다만 이를 명백히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Tringham 1983). 필자는 후자의 평가에 따라 본 고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의 진행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모델에 붙여진 이름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역사의 진행을 유도하는 것이 변증법이라는 헤겔의 생각과 유물론의 철학이 결합된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면, 모든 물질적 현상에는 변화하려는 경향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상충되는 경향들이 일으키는 지속적 갈등(反)과 역동적 통합(合) 속에서 기존의 상황이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듯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 현상의 전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이론적 모델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이것을 역사 해석에 대입시킨 것이 바로 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이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차일드가 마르크스주의 사상으로부터 전자만을 빌려왔지, 후자까지 수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sup>12)</sup> 따라서 그의 역사 서술이 소위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향해 사적 유물론에 던져졌던 비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 사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제쳐 두더라도 - 문제가 아닐 수 없다.<sup>13)</sup>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본 차일드는 결국 물질적 조건들이 등장하고 상호 작용하다가 모순으로 인해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조건들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가 변동한다고 보았다. 일례로 그는 ‘식량-생산으로의 전환’이라는 혁명적 변동과 관련해서, 수렵-채

12)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각주 1)에서 언급된 『고든 차일드의 사회고고학』(차일드 2009)의 31쪽을 보면, 이 책의 편집자인 오르서와 패터슨이 쓴 머리말에 “그는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확고하게 받아들였으며...”라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의 영어 원문은 “Because he firmly believes in the interpretive and explanatory sense of Marx’s historical materialism...”으로, 이를 직역하면 “그는 마르크스 역사유물론의 해석적 및 설명적 측면을 확고하게 받아들였으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13) 참고로, 과거사의 전개 양상에 대해 풍부한 식견이 있었던 차일드는 역사의 전개 방향을 예상하는 역사 모델들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다른 마르크스주의 학자들과 달리 사적 유물론이 인류 역사의 전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McNarin 1980: 127).

집적 삶의 방식이(正)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모순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자(反)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농경이 선택 되었다고(合) 설명했다. 이러한 차일드의 변증법적 모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모순’에 관한 부분이다. 차일드는 역사 변동을 촉발하는 동인이 바로 모순된 상황에 있다고 보았는데, 바꾸어 말자하면, 식량 생산으로의 전환과 같은 변동을 주도한 것은 수렵-채집 집단들 중 사회-경제적 모순을 더욱 심하게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의지 혹은 능력이 한층 강했던 집단이지, 농경이라는 내재된 가능성을 가장 먼저 구현한 선구자적 집단이 아니었다. 이러한 차일드의 생각은 다음 두 구절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신석기] 혁명은 구석기 시대의 야만인 가운데 가장 진보된 집단이 아니라 덜 전문화되고 덜 찬란한 문화를 보유한 남쪽의 집단들에 의해 주도되었다(사실 가장 뛰어난 구석기 집단이었던 막달레니안인은 플라이스토세 환경에 아주 성공적으로 적응한 ‘전문가’들이었으므로 혁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Childe 1954: 55).”

“시리아의 스텝 지역이나 이란의 고원 지역에서 그래도 근근이 살아가던 [농경] 집단들은 지중해 연안이나 온대 유럽의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의 미개적 삶의 방식을 굳이 재구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따라서 옛 방식대로 연명해갔다. 반면, 큰 하천 주변의 충적 평야 지대는 비록 그 환경은 열악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물질 자원이 그만큼 풍부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평야 지대의 동기(銅器) 시대 마을들에서 청동기 시대 도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홍수를 방제하고, 운하를 뚫고, 저습지에서 물을 빼고, 건조한 강둑 지대로 물을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그곳은 충분히 에텐동산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었다(Childe 1954: 97-8).”

이와 같이 차일드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적용한 역사 서술을 통해 다음

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류 역사의 변동을 주도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인류 역사의 전개 방향을 결정했던 주체는 가장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뛰어난 적응력을 보였던 가장 ‘발달’된 집단이 아니라, 모순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간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갔던 모든 집단이었다.

한편,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면 모든 상태에는 그것의 파멸을 가져올,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상태로의 전환을 유도할 모순의 씨앗이 내재해 있는데, 차일드는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킨 역사 서술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인류사의 사건들』에서 차일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도시 혁명이 일어난 과정을 설명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과학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결과, 총적 평야를 그곳에 뿌린 씨앗의 백 배나 되는 양을 수확할 수 있는 비옥한 농경지가 꾸였으며, 따라서 그 자급자족적 농부들은 필요 이상의 잉여를 쉽게 생산해 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차일드에 의하면 이러한 잉여는 결국 필수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이는 총적 평야 지대가 농경지로는 풍요로웠지만 건축용 목재와 도구 제작용 석재를 그곳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비옥한 총적 평야를 기반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요로운 농경 생활은 그 시작부터 석재와 목재의 부족이라는 모순의 씨앗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교역 역시 또 다른 모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차일드는 보았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끼나 칼을 제작하기 위해 재료를 수입해야 했다면 사람들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석재나 플린트보다는 순동의 수입을 한층 경제적인 선택으로 여겼을 것이며, 금속의 가공은 석기의 제작과 달리 가내 수공업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으므로, 이것은 결국 사회 조직의 재편성을 가져온 전업적 장인 집단의 등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차일드는 도시 혁명의 진행 과정을 서술하

는 데 있어, 농업 생산성의 증대, 구리 교역의 심화, 전업적 수공업 전문가의 등장 등과 같은 상황들이 어떻게 내재된 모순으로 인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했던 것이다.

## 5. 결론

차일드는 근대 고고학의 토대를 마련한 전문 연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뚜렷한 시각을 가지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행동하는 지성’이었다. 따라서 인류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그의 역사 서술에는 그 어느 연구자보다도 명확하고 의도적인 자신만의 정치적 입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본고에서 재조명하고자 했던 그의 이러한 입장을 정리하면, 그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인간의 삶을 규정하며, 그것들의 전환이 곧 인류 역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전환이 변증법적으로 진행되었고, 특별한 방향성을 가졌던 것이 아니며, 더구나 ‘발전’의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차일드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위대한 고고학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이었던 그의 지적 유산을 잘못 해석하는 일각의 흐름을 바로잡고자 했다. 인류 역사 연구라는 거대한 주제에 맞서고자 했던 차일드의 학문적 노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오늘날도 이 분야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차일드 저, 김권구 역(2009), 『고든 차일드의 사회고고학』, 사회평론.  
트리거 저, 성춘택 역(2010), 『브루스 트리거의 고고학사』, 사회평론.  
Braidwood, R. J. and Howe, B.(1960), *Prehistoric Investigations in Iraqi Kurdist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lde, V. G.(1925), *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London: Kegan Paul, Trence,  
Trubner and Co.  
Childe, V. G.(1926),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Kegan  
Paul, Trence, Trubner and Co.  
Childe, V. G.(1928), *The Most Ancient East: The Oriental Prelude to European Prehistory*.  
London: Kegan Paul, Trence, Trubner and Co.  
Childe, V. G.(1930), *The Bronze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ilde, V. G.(1934), *New Light on the Most Ancient East: The Oriental Prelude to  
European Prehistory*. London: Kegan Paul, Trence, Trubner and Co.  
Childe, V. G.(1935), “Changing methods and aims in prehistory: presidential address  
for 1935”,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1, 1-15.  
Childe, V. G.(1936), *Man Makes Himself*. London: Watts and Co.  
Childe, V. G.(1942), *What Happened in History*. Harmondsworth and New York:  
Penguin.  
Childe, V. G.(1944), *Progress and Archaeology*. London: Watts.  
Childe, V. G.(1946a),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 243-51.  
Childe, V. G.(1946b),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Three “Ages” in Archaeological  
Classification”, *The Modern Quarterly* I, 18-33.  
Childe, V. G.(1947a), *History*. London: Cobbett.  
Childe, V. G.(1947b), “Archaeological Ages as Technological Stages”,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LXXIV, 7-24.  
Childe, V. G.(1950), “The Urban Revolution”, *Town Planning Review* 21, 3-17.  
Childe, V. G.(1954), *What Happened in History* (2nd ed.) Harmondsworth and New

- York: Penguin.
- Clarke, G.(1976), "Prehistory since Childe",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London* 13, 1-21.
- Daniel, G.(1967), *The Origins and Growth of Archaeology*, London: Hammondsworth.
- Faulkner, N.(2007), "Gordon Childe and Marxist Archaeology", *International Socialism* 116, 81-106.
- Gathercole, P.(2005), Childe's Revolutions, in C. Renfrew and P. Bahn (ed.) *Archaeology: The Key Concepts*, pp. 35-41. London: Routledge.
- Green, S.(1981), *Prehistorian: a Biography of V. Gordon Childe*, Wiltshire: Moonraker Press.
- Greene, K.(1999), "V. Gordon Childe and the vocabulary of revolutionary change", *Antiquity* 73(279), 97-109.
- Kradin, N. N.(2006), "Archaeological criteria of civilization", *Social Evolution & History* 5(1), 88-107.
- Kuper, A.(1988), *The Invention of Primitive Society*, London: Routledge.
- McNarin, B.(1980), *The Method and Theory of V. Gordon Child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organ, H. L.(1907)(1877), *Ancient Society*, New York: H. Holt and Company.
- Nisbet, R. A.(1969), *Social Change and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rser, C. E. and Patterson, T. C.(2004). "Introduction: V. Gordon Childe and the Foundations of Social Archaeology", In T. C. Patterson and C. E. Orser (eds.) *Foundations of Social Archaeology: Selected Writings of V. Gordon Childe*, pp. 1-23.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Patterson, T. C. and Orser, C. E. (eds.)(2004), *Foundations of Social Archaeology: Selected Writings of V. Gordon Childe*,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Sanderson, S. K.(1990), *Social Evolutionism*, Cambridge: Blackwell.
- Sherratt, A.(1989), "V. Gordon Childe: Archaeology and Intellectual History", *Past and Present* 125, 151-185.
- Smith, M. E.(2009), "V. Gordon Childe and the Urban Revol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on a revolution in urban studies", *Town Planning Review* 80(1), 3-29.
- Trigger, B.(1968), "Major Concepts of Archaeology in Historical Perspective", *Man* 3, 572-41.

- Trigger, B.(1980), *Gordon Childe: Revolutions in Archaeology*, London: Thames and Hudson.
- Trigger, B.(1987), “V. Gordon Childe: A Marxist Archaeologist”, In L. Manzanilla (ed.) *Studies in the Neolithic and Urban Revolutions: The V. Gordon Childe Colloquium Mexico, 1986*, pp. 1-8. BAR International Series 349.
- Tringham, R.(1983), “V. Gordon Childe 25 Years After: His Relevance for the Archaeology of the Eighties”, *Journal of Field Archaeology* 10(1), 85-100.

원고 접수일: 2011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1년 5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26일

ABSTRACT

---

## An Examination of V. Gordon Childe's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Process

Ko, Ilhong

V. Gordon Childe's understanding of how human history unfolded was based on certain ideas regarding the historical process. However, the dissemination of these ideas amongst the wider public has been accompanied by a mis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intentions and messages contained within. The aim of this paper, therefore, is to rectify this unfortunate situation by providing a detailed discussion on Childe's perception of the historical process. In order to do so, a brief examination of his two revolutions - the Neolithic and Urban - is first carried out since an incomplete understanding of these two concepts is thought to have contributed to the inaccurate interpretation of Childe's original ideas on human history. These ideas are then considered in the following section and three key points are noted. First, Childe's interpretation of human history was based, above all, on a socio-economic perspective. Second, Childe had belief in the progress of humankind, but progress was not taken to mea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cial evolutionary sense. Third, the process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 which determined the outcome of human history, was dialectical rather than directional.